

시민의 강

장 세 린

고개 숙여 노래 부르는
키다리 갈대 아가씨의 수줍은 몸짓을 보았어요.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변덕쟁이 소금쟁이 아저씨의 스케이트 솜씨도 보았고요.

하늘이 놀러 내려와 구름을 홀로 두고 떠난 자리에
‘빠끔빠끔’ 잉어친구들이
햇살을 먹습니다.

아이들의 풀피리 소리에
낮잠 자던 고추잠자리 나풀나풀
여름 인사를 하고

바람은 구름을 타고
구름은 바람을 타고

여기는
우리 동네
시민의 강 입니다.